

‘수능 D-20’ 코로나19 확산에 광주·전남 교육당국 긴장

다음달 2일까지 아전관리 특별기간 정하고 공문 발송
시험장 특별 방역·병원 시험장 지정 안전한 수능준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수능 전 특별관리 기간을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장감 속 안전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일 하루 전날인 오는 12월2일까지를 아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외부 개인 행사 자제, 시험장 안전 확보 등을 담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수능 직전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학생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빛고을전남대학교 병원을 특별 시험장(병실 2개)으로 지정했다.

특별 시험장에서는 8명의 학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 경우 3인 1조의 교사가 감독관으로 나선다. 자가격리 학생은 119가 해당 병원까지 이송한다.

전남교육청도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수능 시험 준비에 들어갔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의 학교 전파를 감시하는 한편 수능 전 시험장 53개교에 대한 특별 방역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53개 시험장 중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해남 등지의 7개교에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했다.

수능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의 시험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목포시의료원·강진의료

원·순천의료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수험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11일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방통고 학생 381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했다.

교직원 21명과 이중 수업을 진행했던 교사 7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통고는 2주에 한 번씩 등교수업을 한다. 이로 인해 전남여고 1·2·3학년 학생들이 오는 13일까지 원격수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광양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지도한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575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장동 전남여자고등학교 교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닫혀 있다.

10명(해의 감염 2명 포함), 전남은 지난 11일에만 8명(지역 사회 감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인호기자

전남 최대 산림치유시설 ‘국립나주숲체원’ 개장

금성산 일원 58ha 조성

연간 10만여 명 수혜 기대

전남도는 12일 나주 금성산 자락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림치유 및 문화, 숲 교육을 선도할 국립나주숲체원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원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도내 국유림 중 도심에서 가깝고 산림인프라가 구축된 금성산을 산림치유의 최적지로 발굴해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다.

금성산은 아름다운 산림경관과 함께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문화가 공존한 명소가 많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인근에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높게 인정받아 국립나주숲체원으로 선정됐다.

국립나주숲체원은 금성산 일원 58ha에 걸쳐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총 20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며, 체험센터와 대강당, 숲다원, 숲속의 집, 치유숲길 등 체험시설은 물론 숙박시설도 갖춰 맞춤형 산림치유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대상 숲크레이션(숲 탐방, 레크레이션) ▲성인 대상 포레스토리(숲 해설, 숲 체험활동) ▲가족·일반

인 대상 숲나와라 똑딱(숲 탐방, 생태놀이) 등이 운영되며, 이밖에 목공예체험, 다도체험 등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도 편성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에 문을 연 국립나주숲체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광주시, 오늘부터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12일 종료되던 때 큰 것으로, 13일부터 광주시민과 광주 방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대상 시설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해당되며, 단계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가 있으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

다. 단, 방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며, 예외 상황으로 음식·음료 섭취 시, 수술·치료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박항 복지건강국장은 “마스크 미착용 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음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한빛원전 3,4호기 관련 지역주민들께 드리는 사과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빛원자력본부를 사랑해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한빛원전 공극 등 일부 부실공사 및 장기간 발전정지로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은 건설 당시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실시공 문제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수원은 이러한 과오와 소통·공감이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군과 지역 주민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수원은 발견된 결함에 대한 최상의 조치를 통해 지역에서 신뢰받는 안전한 한빛3,4호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수 과정과 결과 등을 지역 주민 여러분과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은 한수원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간의 관심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안전운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빛3,4호기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 하겠으며 투명한 소통으로 믿을 수 있는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일동